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지브리크

경제의 눈

문화 이야기

전효숙과 유타 림바흐



김신명숙 <작가>

전후보자가 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진보적 시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여성'이라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역사적 통찰'이 필요하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정절차상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존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관련된 문제들을 관결하는 곳이다. 그런데 헌법 재판 업무는 법조문의 단순한 형식논리만 따지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통찰과 시대를 읽는 눈, 국가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필요로 한다.

“여자들이 변화를 부른다” 림바흐가 헌재소장에 지명되고 난 직후인 1994년 여름 ‘슈피겔’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의 제목이다.

또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특정한 상황에서 남자들은 다르게 현실을 파악할 뿐 아니라 남들과 다른 삶의 경험 때문에 똑같은 법적 문제에서도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여성이 많아지거나 여성과워가 강해지면 남성이 지배적이던 때와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세상이 그만큼 균형잡히고 다양하게 발전한다는 얘기였다.

림바흐는 2002년까지 헌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녀는 인권과 시민권,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전염병에 반대하고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진보적인 판결들’을 이끌어냈다.

림바흐는 2002년까지 헌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녀는 인권과 시민권,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대응했으며 전염병에 반대하고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수용하는 ‘진보적인 판결들’을 이끌어냈다.

로 활발히 활동하며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헌재소장이 되기 전 림바흐는 헌법에 여남동 등권을 더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용감한 유타’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에 걸맞게 가정생활에서도 페미니스트로서 철저한 모범을 보였다.

전효숙 후보자가 우려곡절 끝에 헌재소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녀가 한국여성과 한국사회에 어떤 변화를 자극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다. 사람도 다르고 속한 사회도 다르니 같은 직위지만 두 여성의 활동과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추석경기’마저 사라진 밑바닥 지방경제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은 예년과 달리 백화점에서부터 재래시장에 이르러까지 명절 대목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하반기 들어 뚜렷해진 실물경기 하강 국면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추석 특수(特需)마저 실종돼 불황의 터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추석경기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지역 백화점의 추석선물 예약률이 경기 최악이라고 했던 지난해의 50%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30%대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러면 결국 정부는 지방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체감경기에 가장 민감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소비시장을 부활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불황의 심각성은 3~4년 전만 해도 상위권에 속했던 광주지역 백화점의 올 매출 신장률이 전국 지

점 중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위기경보’나 다름없다. 소비 위축은 기업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서 아예 성장기반을 무너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4.5%에서 4.3%로 낮춰 전망하는 등 본격적인 경기 하강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도 지역경제의 앞날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면 결국 정부는 지방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체감경기에 가장 민감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소비시장을 부활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전교조, 차등 성과급 반납투쟁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차등 성과급 반납 투쟁을 강행했다. 전교조는 14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과급 반납을 시도했다.

교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학생들은 보다 우수한 교사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교육이 붕괴된 마당에 교원평가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반납투쟁을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게 굳어 있다. 집단이거주의에 빠져 교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치·이념투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반납투쟁을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게 굳어 있다. 집단이거주의에 빠져 교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치·이념투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인데 이어 20%까지 후퇴했다. 성과급 차등 지급은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있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근무평가에 따라 임금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풍토가 보편화되어 있다.

교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학생들은 보다 우수한 교사에게 배울 권리가 있다.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교육이 붕괴된 마당에 교원평가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반납투쟁을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게 굳어 있다. 집단이거주의에 빠져 교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정치·이념투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의료 칼럼

양 동 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투자 정책 4대 역점과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만 16세, 40세, 66세 연령층에 이르는 모든 국민은 나이에 알맞은 이른바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아내고 초기에 일찍 발견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최선이다. 아프면 병원에 물론 가야하겠지만 아프지 않을 때 내 몸을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검진, 꼭 필요하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효과있는 검진을 받지 못해 왔다. 점차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제공해야 할 것이다. 몇몇 대형병원들의 종합검진은 그 비용이 아무리 저렴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십 만원에 달해 저소득층이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물 거절하는 선생님 통해 교단 불신 깨닫기

말이 문제라 학교에 갈 일이 생겼다. 그다지 좋지 않은 일기에 걱정이 앞서 비슷한 일로 학교에 갔다 왔던 다른 이웃과 상의를 했다.

요”라며 극구 사양을 했다. 내민 내 손이 부끄러웠다. 그 일이 있은 뒤 스스럼없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 문제를 얘기할 정도로 허물없이 지내고 있다.

기고

항 병 길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절박한 생존권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 복지, 장애인의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정착 필요한 건 평생의 일자리다.

같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한 예로 텔레마케팅회사인 (주)CJ텔레닉스는 장애인을 고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1·2운동’을 아십니까

특히, 기업규모별 고용률을 보면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1.67%, 300~500인 미만은 1.60%, 500~1,000인 미만은 1.49%, 5,000인 이상사업장은 1.13%다.

별하지 않고 함께 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사만 표명하면 광주지방노동청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골마을 치안 허점 이용 농산물 도둑질 성행

최근 곡성으로 직장 동료들과 봉사활동을 겸한 자체 연수를 다녀왔는데, 마을 한쪽에 ‘가족, 과일을 훔쳐가지 마세요’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CCTV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마을이다. 이같은 허술함이 오히려 표적이 됐고, 애써 키운 가족과 농작물을 차량으로 싣고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無等鼓

〈제리 플레처는 뉴욕의 영업용 택시 기사. 그는 식수에 섞여 있는 비급속원소나 국제금융정책의 비밀, 우주선이 발사될 때마다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을 승객들에게 들려준다.〉

부채질하고, 세계적인 경제파탄을 일으켜 모든 황금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오게 한다’는 내용이였다.

음모론

미국은 로스웰 UFO 추락(1947)을 은폐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1969)은 허구였다, 다이애나는 영국 정보기관 M16에 의해 암살(1997) 당했다는 등등의 음모론은 지금도 회자(膾炙)되고 있다.

9·11 테러 5주년을 전후, 인터넷에선 ‘루즈 체인지’(Loose Change)가 공개한 다큐멘터리가 폭발적인 것이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like phone numbers and website.